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 | | | |
|------|--------------------|------|---------------------|
| 응모분야 | 웹소설 | 접수번호 |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작품제목 |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 | |

18 : 창공을 나는 저 파랑새처럼

학익진을 치며 밀고 내려오는 농민군의 기세에 관군은 속절없이 쓰러졌다. 그들의 신식 무기인 레밍턴 롤링블럭 소총과 회선포는 농민군이 굴리는 장태를 좀처럼 뚫지 못했다.

황룡촌 일대는 화약 터지는 소리와 냄새, 그리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비명소리가 한데 뒤엉켰다.

“발포! 계속 발포해! 역당들에게 등을 보이지마라!”

측면을 담당하던 농민군 몇이 총탄에 쓰러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현세 밑에서 제대로 저격을 배운 사수들은 포수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고, 측방에서 뺨어 치는 개남과 화중의 날개는 적진의 허파를 효과적으로 조각냈다.

무엇보다 농민군의 구심점을 이루는 봉준의 호남창의군은 포효하는 맹호처럼 심영병의 심장부를 찌르고 들어왔다.

봉준은 하늘을 찌를 듯 죽창을 들어 올리며 포효했다.

“멈추지 마라! 부상자는 장태 중간으로! 계속 굴러라! 관군이 눈앞에 있다!”

사방에서 굴러 나오는 장태를 본 관군의 낯이 흠뻑으로 물들었다.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나무통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아무리 포를 쏘고 총탄을 갈겨도 굴러오는 장태의 속도는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불벼락을 피한다는 심정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피, 피해라! 깔려 죽는다!”

야무지게 갈고 닦은 300명의 정예군들은 이제 거의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더군다나 6000명에 육박하는 농민군의 분노는 땅에 심겨진 산천초목도 떨게 만들만큼 불타오른 상태였다.

그 중심에 붉은 머리띠를 한 사내가 있었다.

이마를 두른 반질거리는 붉은 비단이 희뿌연 먼지를 머금을 때마다 관군 서너 명이

떨어져나갔다. 매섭게 날아드는 죽창의 위력 앞에서 신식 무기도 맥을 못 추었다. 그 귀신같은 장면을 본 관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어디 그뿐인가. 조그만 덩치로 저 붉은 머리띠를 지휘하는 놈은 더욱 가관이었다.

봉준과 현세는 환상의 콤비라도 되는 양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린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친히 알리기라도 하듯 날카롭게 버린 죽창이 전속력으로 날아들었다.

심영병의 우두머리인 이학승이 소리쳤다.

“포기하지 마라! 역당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현세의 눈살이 날카롭게 좁아졌다.

저 놈이구나. 현세는 적진의 우두머리를 죽이기 위해 관군이 몰려있는 중심으로 몸을 던졌다. 누구하나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현세야! 너 그러다 죽어, 이놈아!”

봉준의 음성이 귓전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세는 황룡강변으로 퇴각하는 심영군을 죽자 살자 뒤쫓았다. 연희와 현종을 그리 만든 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봉준은 신들린 사람 마냥 관군을 재끼는 현세를 잡기위해 있는 힘껏 달렸다. 목숨을 내놓고 날뛰는 애송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수세에 밀린데다 이제거의 전멸에 가까워진 관군들은 오직 살기위해서 질퍽한 길을 거침없이 밟았다. 그들은 저승사자처럼 끝없이 따라 붙는 붉은 머리띠의 사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학승이 소리쳤다.

“이 역당 놈아!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평소라면 더 심한 조롱으로 반격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현세는 의외로 조용했다. 그는 쥐고 있던 죽창을 무른 바닥에 박아 넣고 험겨워진 땀기 끝을 짖고 고쳐 댔다.

“더 할 말은?”

이학승의 눈빛에 짙은 두려움이 스쳤다.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뻗속까지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될 일이었다.

그는 양반이라면 응당 갖춰야 하는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애써 점잖음을 유지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행복하면 내 친히 목숨만은 구명 해주겠네.”

“거절한다.”

현세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죽창을 뽑아들고 이학승에게로 달려들었다.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대나무 끝이 총탄처럼 빠른 속도로 지르고 들어왔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히익!”

가까스로 죽창 끝을 피한 이학승은 바닥에 나뒹굴며 거친 호흡을 토해냈다. 이번에는 피했지만 다음은 없을지도 몰랐다.

순간, 멀리서 달려오는 봉두난발의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제 눈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이 농민군의 우두머리이자 중심, 전봉준이었다.

이학승은 넘어지면서 짚고 있던 바닥의 흙을 잔뜩 움켜쥐어 현세의 얼굴에 던졌다. 시간을 벌려면 이 방법뿐이었다.

‘저 놈을 죽여야 한다, 반드시.’

이학승은 등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상총을 더듬었다. 이는 굴욕을 자처하지 않기 위한, 혹시 모를 마지막 순간을 위해 마련해 둔 팔뚝만한 조총이었다.

결심을 내린 이학승이 소리쳤다.

“심영의 군사들은 당장 저 놈을 막아라! 명령이다! 잠깐이어도 좋으니 막아!”

퇴각하던 관군 몇이 현세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 역당 놈아, 어딜 가느냐?”

현세는 뭉툭한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눈동자를 거세게 치켜 올렸다.

“역당 놈?”

불행히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현세 앞에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수수깡

마냥 픽픽 부러져 나갔다. 한꺼번에 덤벼보아도 강철 벽을 상대하듯 속수무책이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도 이학승은 이를 사리물며 외쳤다.

“조금만 더 버텨라!”

지칠 대로 지친 이학승은 마지막 힘을 짜내 장전을 준비했다. 저 귀신같은 붉은 머리띠 놈보다 그 뒤에 있는 우두머리를 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금이다!’

치지직! 소리와 함께 장전된 총구가 봉준의 가슴을 겨누었다. 3초, 2초, 1초...

“봉 형! 피하십시오!”

총구에서 쏟아진 단말마의 폭발음과 함께, 커다란 사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워낙 순식간의 일이라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겨누어진 총구는 분명 봉준을 향했으나, 총탄이 박힌 대상은 다른 사람이었다.

“현세야!”

봉준은 가슴에 총을 맞아 널브러진 현세 쪽으로 황급히 방향을 꺾었다. 그는 총을 재장전 하고 있는 이학승을 향해 있는 힘껏 죽창을 날렸다.

병-! 소리를 내며 날아간 죽창은 이학승의 복부에 정면으로 박혔다.

“크흠!”

이학승은 부들거리는 몸을 채 가누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동공이 죽음으로 흐려진 것을 확인한 봉준은 총탄을 맞고 쓰러진 현세의 몸을 제 무릎에 받쳤다. 쉴 세 없이 흐르는 핏물이 봉준의 손마디를 흠뻑 적셨다.

“현세야! 이 미련한 놈, 끼어들긴 뭇헌다고 끼어드냐!”

현세는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싱긋 웃었다. 신파 따위는 취급하지 않던 저였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봉 형... 감각이 없다더니 그거 순 뺑이예요. 아파, 무지하게 아프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농이라니. 봉준은 도저히 평소처럼 웃을 수가 없었다.

“입 다물어라! 동지들이 오고 있으니깐 조금만 버텨!”

울분 섞인 봉준의 음성에 동학군 무리가 이쪽으로 황급히 건너오는 게 보였다.

현세는 미소를 지우지 않고 저를 안아든 봉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로 비치는 해가 무척이나 눈부셔서 자꾸만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현세의 음성은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죽음이라니... 이걸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잖아?”

“아가리 닥치라니깐!”

봉준은 수도꼭지마냥 출혈하는 현세의 상처부위를 손바닥으로 째 눌렀다. 구하기는 지랄한다고 구하냐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현세는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밝은 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혀끝으로 쇠내가 올라오는 것이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 이렇게 된 이상, 현세는 전부터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봉 형이 제 글 스승이었죠? 그 독한 놈이 누군가 했더니만, 바로 나였어.”

걱정으로 잔뜩 물들어있던 봉준의 눈동자가 활짝 열렸다.

“...너, 기억이 돌아온 거?”

봉준의 목소리 또한 전에 없이 떨렸다. 갈라진 그의 음성에서는 기억을 잃고 이상한 말만 지껄이는 현세를 보았을 때보다 더 깊은 탄식이 묻어났다.

“허! 기억이 돌아왔어!”

현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자신은 정이준이라는 남자이며, 저 멀리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 따위는 꺼내지 않았다.

이미 자신은 현세였다. 짧다면 짧겠지만 그는 농민이 아들 현세로써, 동학군의 일원으로써 최선을 다했다.

“살아서 보여줘요.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게.”

나처럼 무모하게 굴지 말고. 현세는 더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뜨는 것으로 다음 말을 대신했다.

이윽고 학익진의 날개를 담당하던 두 대장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현세는 이제 발 올림만 들어도 누군지 짐작이 갔다.

“현세야! 이게다 무슨 일이어!”

“현세, 이놈아!”

정말 기차화통 그 자체잖아? 현세는 픽 웃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틀었다. 마지막에 세 사람을 전부 보다니, 이제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이윽고 자신이 이끌던 조총부대와 함께 개머리판을 만들던 목공 아재들이 속속들이 도착했다. 먼발치에는 철중도 보였다. 그는 이미 장사라도 치르는 사람처럼 눈물범벅이었다.

현세는 흙더미를 쏟아 부은 듯 짝 막힌 목구멍을 겨우 움직였다.

“형님들, 오셨어요...?”

곧 죽을 사람처럼 피범벅이 된 현세를 보자마자 두 남자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다.

“봤지? 우리가 승리했구먼. 현세 너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제.”

가망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남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기적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저 착해빠진 놈에게 내려주기만을 바랐다.

화중은 점점 가늘어지는 현세의 숨결을 느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을 본 현세의 동공이 활짝 열렸다.

‘반지?’

현세는 푸른빛을 내는 반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빛깔과 만듦새에 지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

이제야 생각났다. 폭탄테러 신고, 역사박물관.

현세는 저 물건을 줍고 난 직후 이쪽 조선에서 의식을 차렸다. 그때 들어선 전시관이 동학관이라는 사실도 점점 선명해졌다.

‘꿈이 아니었구나. 진짜였어.’

화중은 반짝이는 반지를 현세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현중이 유골로 만든 것이여. 동상 가는 길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

그랬구나. 현세의 눈두덩이 붉게 달아올랐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석도, 연희씨도... 많이 아팠을까요... 그럼 안 되는데...”

차마 입 밖으로 뱉지 못했던 말이 버석하게 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사실 하나뿐인 동생을 잃은 것은 화중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화중은 손수 현중의 시신을 수습하고, 고이 모은 유골을 현세에게 전해주었다.

현세는 제 손에 든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반짝거리는 푸른 빛깔이 꼭 현중의 웃음과 닮아보였다.

“성! 이제 오는겨? 어여와서 같이 감자먹어.”

그는 완전한 봄날의 기운을 가슴에 한가득 채웠다. 비릿한 췌내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굽어보며 환하게 웃는 현세의 미소에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제게... 이런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봉 형... 화중 형... 개남 아재, 아재는 역시 형보단 아재가 어울려... 그리고 조총부대, 호남창의군... 전부 잊지 않을게요.’

현세는 천근만근이었던 눈꺼풀을 스르르 내렸다. 귓가에 닿는 울음소리가 점점 크게 번져나가는 게 느껴졌지만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흐릿해져가는 시야에 비친 하늘이 시리도록 맑아보였다. 문득, 그 푸름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파랑새를 본 것도 같았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앓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개남이 구슬피 부르던 노랫가락이 귓전을 울렸다. 그렇게 이준 아니, 현세의 세상은 안식의 장막으로 뒤덮였다.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完-